

않고 있어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론 내성의 부족 탓이지만 소식이 궁금하다. 오늘처럼 이렇게 늦게 혼자 귀가하는 날이면 그때의 보람을 되새기면서 어느 코미디언 말처럼 “난

이렇게 산다우”를 되뇌이면서 고층건물 맨 밑 바닥의 벽돌 한장의 힘을 음미하면서 자위해 본다.

◇ 현장일기 ◇

## 보건담당자가

## 겪어가는

## 일상이야기



남성전기산업주식회사 의무실 나 경 려

고향의 상긋한 풀내음과 신선한 바람을 가슴에 온통 품고서 이별하기 아쉬운 부모님을 뒤로하고, 상경하여 돌아온 곳은 구로공단 3단지 에 있는 ‘남성전기산업주식회사’ 내의 의무실입니다. 6일 동안의 추석휴가를 부모님 곁에서 지내고 근무지로 나서는 발걸음은 코끝의 메스꺼운 감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만나게 될 친구·동생·상사님들의 모습에 이끌려 빨라만 집니다. 공단오거리의 상가지역을 지나면 제 2 공단에 들어서게 되고 철산리 방향으로 나아가서 고가도로를 건너면 제 3 공단에 들어서게

됩니다. 눈을 들어 왼쪽방향을 바라보면 회색건물을 바탕으로 써 있는 ‘NAMSUNG’ 표시가 초가을의 높은 하늘처럼 보입니다. Car-Stereo 부품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ㄷ’자형 3층건물이 저의 세번째 일터이며 3년이나 저를 붙들고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울퉁불퉁한 도로의 감촉을 느끼면서 많이 건설된 공단 종업원을 위한 아파트촌을 바라보고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는 봉선화를 보면서 정문을 들어섭니다. 동북으로 변모한 수위 아저씨들과 웃음을 교환하고 마주치는 아저씨들과 인사를 나누면 매일

매일의 반복인데도 오늘은 어색하고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건물 한쪽편의 2층에 위치한 의무실은 현장 탈의실을 반분하여 임시로 안주해 있는데 15평 남짓한 공간에는 침대 세개와 캐비닛, 의약품 보관함과 탁자, 냉장고, 체중기와 아름다운 음악을 선택하여 들려주는 라디오 등이 있습니다. 일명 ‘금남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의무실에 올라와 안내판을 퇴근에서 근무로 돌린 후 음악의 선율에 따라 청소를 하며 컵과 물을 탁자에 정리하고 간호원 가운과 캡을 쓰면서 비상 약품상자와 소독약품 등을 처치대용으로 사용하는 책상위에 놓고 의자에 앉으니 8:30분입니다. 처치 기록표를 꺼내놓고 오늘일을 그려봅니다. 월요일은 과식·특식 등으로 소화기 장애자가 많은 날이며, 화요일은 월요일의 연속으로 머리가 무거워서 두통이 속속이고, 수·목요일은 비교적 순탄한 날이고 금요일은 몸살·허리·어깨 등의 통증에 괴로움을 당하는 날이나 토요일은 즐거운 주말답게 방문객이 가장 적은날입니다. 오늘은 6일간의 휴식후이므로 소화 장애자의 발생에 대비한 비상 약약을 재점검하는데 왈가닥 은미씨가 그을린 얼굴에 개성적인 표정을 지으며 “언니”하고 달려옵니다. “은미씨 시골에 잘 다녀왔어? 손은 괜찮고?” “응, 잘 갔다왔는데 언니는? 손이라니? 무슨 손?” 은미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입니다. “다친 손가락 말이야” “응~ 이것? 괜찮지~” 하며 그녀는 오른손 검지를 내보이고는 재빨리 우유를 가지러 층계를 내려갑니다. 그녀의 통통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눈앞에 작년에 그녀의 첫 모습과 저의 갈등과 당황했던 모습이 겹쳐 집니다.

“김은미”

저를 당황케 만들었던 최초의 아가씨입니다. 여기를 일터로 삼고 소신껏 일을 시작한지 일년이 되는 작년 9월 초였읍니다. 그동안 회사내의 질병발생 및 운영방침 등을 조금씩 파악해

가며 적응하려는 단계로서 매일의 업무에 조심스럽고 충실하려 했으나 보편적인 소화불량·두통·생리통 등의 질병과 한달에 한번정도의 신경성 환자들 뿐이었기에 나태해지고 안일해져 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럭저럭 오전을 보내려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발자욱소리와 훌쩍거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으며 이유모를 공포감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의무실문이 무겁게 열렸고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뚝뚝 떨어지는 선흥색의 액체였습니다. ‘침착해야지’ 하는 자위는 희미해지고 뛰쳐 달라고 싶은 욕신을 억누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을때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잘 익은 고추마냥 흔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Cutting기에 셋트를 밀어넣다 다쳤어요” 하는 동행인과 상황을 다급하게 만드는 동료들의 한마디씩이 저를 더욱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당황하는 자신을 보이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자존심과 이성을 일깨우고 현실에 대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는 아가씨를 달래며 앉히고 요골동맥 압박과 팔을 거양시켜 부축토록 한 후 인사과에 보고토록 조치하면서 부위를 관찰했습니다. 거즈로 압박하며 자세히 보니 골절까지 손상된 것은 아니었으나 검지와 안쪽부위가 1cm넓이로 4cm길이까지 피피면이 떨어져 밀면 부착부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Forcep으로 제 위치로 밀어붙이며 설압자를 지지대로 붕대로 고정시킨후 동행인과 배차된 차로 지정병원에 이송 시켰읍니다. 즉시 병원에 연락하여 사건과 처치내용을 보고하고 응고되는 혈액을 닦아내며 동료들에게 안정을 권유한 뒤에 멍한 시선을 허공에 보냈읍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지냈던 생활, 조그마한 사고를 경시했던 내가 이런일로 폭풍우속에서 허우적 거리다니..., 7~8분동안에 실수없는 조치를 실행했는지..., 자책감과 자신없는 두려움으로 서성거리는 중에 환자는 다시 저를 찾아왔고 불안속에서 그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40여분이 지난후 돌아온 아가씨의 미소와 감사한다는 말은 지금도 선명

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쌩겨풀이 크게진 서글서글한 눈, 우뚝선 코와 뚜렷하게 빨간 건강한 입술. 그녀의 모습이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제조3과 P-1라인에서 Cutting기를 다루고 있는 입사 4년째의 21살 아가씨. 고향인 완도에서 6명의 공주 중에 둘째로 태어나 중학졸업후에 언니의 소개로 입사한 후 2년동안을 모범적으로 일하여 회사의 추천으로 여상 야간에 학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가씨였습니다. 작업중에 다가오는 추석때의 귀향꿈에 젖다가 기계속 깊이까지 손을 넣었다는 그녀가 껍이 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고 그녀의 명랑함과 정신적 건강함에 저는 진정한 마음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X-ray촬영결과 뼈에는 이상없다는 것과 2주정도의 치료만 받으면 될거라는 의사의 전달은 우리의 기쁨을 한층 더해 주었습니다. 추석휴가전날 그녀가 “언니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거 언니주고 싶어요.” 하면서 주황색 머리핀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요?” “아니요. 이렇게 다쳐서 식구들이 걱정하실까봐 학교때문에 못간다고 편지 했어요.” 시무룩한 그녀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집에 갈수 있게 되기를 빌었습니다. 며칠후 외래치료를 끝내고 의무실에서 추후간호를 실행하면서 우리의 정은 깊어졌고 공적관계를 이탈하여 사적인 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년전의 꿈대로 은미는 고향에 내려가 송편을 만들고 벼를 베고 돌아온 것입니다. 은미로 인하여 매사에 긴장되고 준비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혼자만의 응급처치와 상황처리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얻음은 아가씨들과 ‘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기심과 자유로운 근무처를 원하여 발을 디뎠던 구로공단 의무실. 잡지와 신문의 사회면에서 노사분규, 노동쟁의 등의 단어를 생소하게 보았던 지난날. 그리하여 직장이라는 공적인 장소개념과 간호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

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존대말과 예절로 일정한 선을 유지하려 했던 직장관은 내적인 순박함과 서울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던 그들에 의해 변화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집안걱정, 삶에 대한 회의, 퇴근 후의 시간 활용 등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 주고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체적 균형과 정신적 성숙을 꾀어가는 우리 아가씨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의 베일이 벗겨지면 밝은 태양이 빛을 비추듯이 우리 의무실에도 빛으로 가득차길 바랍니다.

1,200여명의 근로자들이 유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길 바랍니다. 여름철의 30℃를 웃도는 실내온도·차소리·기계소음·아가씨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대신에 차분하며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선율이 흐르는 곳으로 변모되길 바랍니다. 기업은 좋은 품질을 만들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한편 소속근로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저의 성숙함과 아울러 전 사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상냥한 얼굴, 공손한 말씨, 겸손한 자세, 인내」는 우리 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저를 이끌어 줍니다. 이제 청정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사원들의 마음은 썰렁해지며 환절기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니 이에 대비하여 공중 위생과 식사 요법, 가벼운 운동 등을 강조, 교육시켜야겠습니다. 정신적 성숙을 위하여 독서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젊음을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언니로서 대화하고 이끌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리라 다짐하며 보건의지를 펼쳐드니 낮익은 철자들의 얼굴들과 겹쳐져 제 눈에 가득히 들어옵니다. 모두 무사히 고향땅을 밟고 왔는지... 오늘 하루는 안부인사와 음식파티로 즐거운 날이 될 것을 기대하며 회상속의 저를 일깨웁니다.